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2년도  
제5호

# 사랑의 메<sup>+</sup>아리



교황청 재단



“예수님이 가난을 통해 사제를 풍요롭게 만들지 않으신다면,  
사제는 가장 가난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사제를 친구라고 일컫지 않으신다면,  
사제는 가장 쓸모없는 종입니다.

착한 목자께서 무리 가운데에서 사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신다면,  
사제는 가장 나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4년 4월 17일  
성유 축성 미사 중에서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새 사제 서품을 받은  
우크라이나 사제의  
첫 미사 봉헌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제가 사제직에 관한 글을 쓸 때 - 특히 이 시대에서는 - 불신, 반감, 심지어 노골적인 경멸과 공격, 또는 최소한 빈정거림 같은 반응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여론에서 보이는 사제직에는 종종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권력구조에 불과하다거나 발전의 걸림돌, 성범죄자들의 소굴이라는 조롱도 받습니다. 물론 사제가 자신의 성소를 거슬러 엄청난 추문을 일으키고, 심지어 교회에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해도 하느님께서서는 사제를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이 뽑으신 사제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심으로써 사제 역시 하느님을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만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따라서 사제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다거나 경력을 쌓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제는 자신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내맡겼으니 이제 주인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제 성소의 가장 심오하고도 단순한 현실입니다.

사제는 신앙의 이런 단순한 현실을 타협이나 변명 없이 이 세상에 선포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며 양심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래서 무더진 양심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부담이자 병입니다. 죄가 더는 죄로 인식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더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정화하고 속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은 치명적인 상태에 이릅니다. 따라서 사제는 특히 고해성사와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는 사명을 지닙니다. 그래서 사제 역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이 머무는 성체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 “사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제 후원은 ACN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project)’에 속합니다. 죄인들을 위한 죄인들의 이 ‘프로젝트’는 세상의 죄를 없애고, 세상이 하느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제에게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 요한 헨리 뉴먼은 모든 사제를 대신해서 신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구분하는 것은 은총, 오로지 은총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임무를 맡은 사제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하느님이 화해하도록 사제들이 청하듯, 죄의 용서를 받은 여러분도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제들이 인내라는 큰 선물을 얻고, 지금 머물고 있다고 믿는 그 은총 속에 계속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설교한 이후에 사제들 스스로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ACN 지도신부 마틴 마리아 바르타

Fr. Martin Maria Barta

미사 예물



## 우리 삶의 마지막 말씀은 항상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에스텔리에 있는 알베르틴 관상 수도회 소속 다섯 사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ACN의 후원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장인 에세키엘 로페즈 로페즈 신부가 쓴 글입니다. “거룩한 희생 제사에서 우리는 지금껏 거룩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억압하는 듯 보이는 절망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힘든 과업에 동참합니다. ACN의 지향을 위해 성찬 전례를 집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과 역사의 마지막 말씀은 항상 하느님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신생 공동체의 경우, 미사 예물을 지원받지 못하면 거의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니카라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계

다가 니카라과 정권은 교회를 점점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해 이곳 수도자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올해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미사 예물로 총 7,800,000원을 지원합니다. 에세키엘 신부는 여러분이 자신과 동료 사제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 지향에 미리 감사를 표하며 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연대가 더 단단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인구 2억 7200만 명으로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여러분이 봉헌하는 미사 예물이 사제들을 위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이 큰 섬나라에서는 맨발 가르멜 수도회가 올해 선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17세기에 이곳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했지만, 첫 사제 두 명이 1638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로부터 344년이 지난 1982년에서야 가르멜 사제 두 명이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첫 양성소를 세우면서 젊은이 26 명이 입회했습니다. 오늘날에는 55명에 이르는 방인 가르멜 사제들이 있고, 89명의 젊은 수도자들이 현재 수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사이, 일부 인도네시아 가르멜 사제들은 이미 일본에서 선교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장인 마르쿠스 투레 신부는 깊은 감사와 기쁨을 표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성장이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지원해주는 ACN 후원자들의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아량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 참된 가르멜 수도자 교육을 받는 젊은 사제들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44명의 가르멜 사제들에게 여러분의 미사 예물을 전달합니다. 그 금액은 총 30,300,000원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그들의 40주년을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니카라과: “예수님, 예수님, 제게 오소서!”

인도네시아: 성장과 은총의 기쁜 40주년

원프리트 신부에게도 모든 선교의 중심은 미사입니다



선교

# 주교님이 천막에서 지내는 마을

짐바브웨 북부의 친호이 교구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인 치순고 선교지역에는 마을이 60곳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도마 부족에 속합니다. 이곳이야말로 교황 프란치스코가 관심을 요청한 '사회의 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는 레이몬드 주교와 월터 신부



부활절에 레이몬드 무판다세과 주교는 외딴 칸엠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주교는 닷새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기 위해 천막에서 지냈습니다. 여전히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을 하면서, 가뭄과 여러 재해에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이들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사제의 손길입니다. 사제는 마을 주민들의 물질적인 생활환

경도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교회가 이곳 젊은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주교의 말입니다.

이곳은 상당한 외지입니다. 월터 체니카 신부는 신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140km에 이르는 험난한 길을 차로 달려야만 합니다. 신부의 낡은 자동차는 거의 150만 km를 주행한 뒤 이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동차 없이 사목활동을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교는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사제를 위한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외딴 마을 주민들이 계속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로 사정에 알맞은 튼튼한 운송수단 구매를 위해 39,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 하느님 선교사업의 심장, 그리고 손과 발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이들은 전통적인 부족 생활방식에서 공장 정보 시대로 내몰렸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실항 상태, 범죄, 마약과 알코올 의존증, 가정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와바그 교구의 가톨릭교회는 가정 사도직과 신앙 심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년 과정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에는 특히 혼인 준비과정, 가족 상담, 가정과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교육, 교리교사 양성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미 첫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사를 받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심이 강해지고, 생활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어린이, 어

“예수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르신, 여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놀드 오로의 주교는 이런 설명과 함께, 올해에도 유용한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후원자가 선교의 심장이라면, 우리는 하느님의 선교사업을 행하는 손과 발입니다.”

**이들에게 4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이곳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기꺼이 마음을 열고 도우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

# “하느님만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강화와 함께, 여러분의 미사 예물을 통해 2713명의 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약 1,370,000,000원에 이릅니다. 사제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자신의 감당 능력을 넘어서면서까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 -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이 표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로한 신자들이 빠듯한 연금에서 아끼고 아껴 절약한 10센트, 20센트를 희생 예물로 사제에게 봉헌합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최대한 절약해서 모은 금액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감사의 표현이지만, 사제들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다급하게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제들 대다수가 종일 사목에 매진합니다. 미사를 집전하고, 성사를 주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끊임 없이 위로합니다. 때로는 전사한 군인들을 유족의 품에 돌려주는 일까지 말합니다. 남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안,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탈출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제들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요청을 가장 먼저 들어주는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키이우-할릭 관구장좌 대교구의 회계 담당자인 비탈리 헤라시미브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내내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요. 사제들이 신자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지만, 사제들도 어딘가에서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사제들은 앞으로 한동안 정상적인 임무를 넘어서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카미아네츠-포딜스키 교구의 라도슬라브 지미트로비츠 보좌주교는 깊은 우려를 드러냅니다. “전쟁의 참혹한 결과는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야 나타납니다. 심리적, 정신적, 신

체적, 인도주의적 결과는 물론, 가정에서 겪게 될 문제점도 나중에 가서야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치유는 과정입니다. 하느님만이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그 이유를 답하실 수 있습니다.” 보좌주교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관해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제와 신자들에게 미사성제는 힘과 내적 치유의 원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 다급하게 필요한 화해와 내적 회개의 힘은 미사성제에서 나옵니다. 지난해 성체대회에서 삼종기도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성체는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시킴으로써 치유해 줍니다. 우리는 성체를 통해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리고 자신의 몸을 쫓겨 형제자매들에게 내어주고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제들은 여러분의 지향을 위해 미사 집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하르키우대목구의 그리스-가톨릭교회 사제 27명에게 총 21,900,000원의 미사 예물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치유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지하철역에서의 고해성사: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



- 1 어떤 어려움이든 가장 먼저 도와주는 조력자: 우크라이나 사제
- 2 실제적인 도움은 하느님 사랑을 보여주는 표시
- 3 성체 - 영원한 삶의 길



# 하느님이 없는 나라?

**알바니아 국민에게서 하느님을 빼앗으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바니아 독재자인 엔베르 호자는 1944년부터 1985년까지 스탈린식 공포 정치를 하면서, 모든 종교적 표현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75만 개에 달하는 방어벽을 설치했습니다. 하느님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곳에서는 두려움으로 인해 아주 기이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1967년에 호자는 세계 최초로 알바니아를 무신론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조차 새로운 현상으로 여겨졌고, 당시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 일반 신자들이 수용소와 감옥에서 고통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미 1950년대 초반, ACN은 철의 장막 뒤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서구사회에서는 누구도 이들에 관해 언급조차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수단을 찾아 나섰습니다.

1990년 정치적 변혁기 당시, 알바니아에는 박해에서 살아남은 성직자가 2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성직자들 대부분이 이미 살해당했거나 구

금과 고문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루돌프 그루리히는 루신야 강제수용소에서 처형당한 알바니아 사제인 74세

마리에 칼레타 수녀(1929-2022)는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의 스테펜 쿠르티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신부는 한 사형 집행인이 쏜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그 신부가 처형당한 이유는 그가 한 어린이에게 알바니아어로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기념비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베풀니다.’” 80세였던 에르네스토 코바 주교는 감옥에서 부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과 비슷한 운명을 겪은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운명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는 후에 추기경이 된 미켈 코리퀴가 있습니다. 1946년에 체포된 그는 말라리아가 창궐한 습지대에서 강제노역에 처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수용소와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지내면서도 비밀리에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1997년에 94세의 나이로 선종하였습니다.

알바니아 성흔 수녀회의 마리에 칼레타 수녀는 가까스로 감옥행을 피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몰래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고,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에게 봉성체를 실시하면서 수녀는 끊임없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수녀원에 입회한 지 5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종신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에 수녀는 2022년 초에 92세의 나이로 선종하였습니다.

오늘날 알바니아 국민은 다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하는 동남 유럽국 알바니아는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6%입니다. 알바니아의 인구 3백만 명 중에서 10% 정도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다면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 결과, 불과 몇십 년 전에 수많은 신앙의 증거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지켰던 신앙을 다음 세대도 깊이 뿌리 내어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이지리아에서 온 감사 편지



이슬람 테러 조직인 보코하람에 의해 파괴된 마이두구리 교구의 올리버 다쉐 도에메 주교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우리 교구의 사제, 수도자, 그리고 모든 평신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교구의 수많은 교회 건물과 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많은 시설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기정을 위해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속적인 평화, 기쁨, 행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의 사랑, 은총, 은유, 동정심이 후원자 여러분의 나날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나의 용돈을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ACN 관계자 여러분, 저는 가톨릭 신자로 11살입니다. 저는 ACN 활동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받은 용돈과 때로 복사를 서면서 받은 격려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작은 기쁨을 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활동 계속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한 여학생

### 훌륭한 사업

ACN이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 행하는 훌륭한 사업에 대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선교 국가의 동료 주교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시는 놀라운 업적에 하느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대주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인도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하신 이 말씀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할 기회가 자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적어도 가족 간에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교회와 교황의 지향을 위한 공동의 기도가 끝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과 발전을 위해 성모마리아께 전구를 청하는 것도 끝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화상회의 같은 기술적 발전을 공동 기

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격리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은 수많은 곳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자발적인 화상 기도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성장을 거듭하는 ACN의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10월 18일에 열리는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바치는 목주기도>에서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안내

ACN은 매년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에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오직 우리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천상의 모후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모마리아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누구도 고통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모두의 집이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10월 18일에 진행되는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는 믿음과 희망의 크고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쟁과 폭력 그리고 가난이 팽배한 우크라이나, 중동,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과 사람들이 평화 안에서 살지 못하는 모든 곳을 힘과 사랑이 가득한 하느님의 손에,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중재에 맡깁시다. 우리 어린이들을 하느님께로 데려가 그분께서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주시기를 청합니다(마태 9,13 참조).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한국지부는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대교구 염리동 성당에서**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님과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후원자 여러분도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평화와 일치,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자세한 사항은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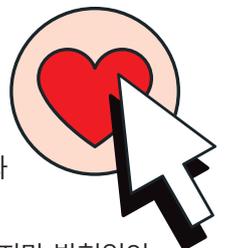
##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캠페인

ACN 한국지부는 절두산 순교성지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와 공동 주관으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첫 발현일인 5월 13일부터 마지막 발현일인 10월 13일까지 매월 13일,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파티마의 성모님께 바치는 묵주기도와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마지막 묵주기도와 미사(서울대교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주례)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

###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캠페인 참여 방법

1.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 누리집 접속**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2. **누리집 메뉴에서**  
**기도하기 ▶ ACN 기도캠페인**
3. **이름, 세례명, 연락처, 묵주기도(번) 입력 후, 참여하기** 클릭